

개 회 사

-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오늘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삶의 무게를 서로 나눠가지며 행복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모두가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는 실상을 지혜로써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고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며, 세상의 못 생명을 가없이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복을 얻으라는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나와 연관되지 않은 가치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는 모두가 한 몸, 한 생명이며 서로에 의지해 살아가는 고마운 존재요, 모두가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큰 아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여리고 애꿎은 생명들이 온 국민의 가슴과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밝은 광명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서 모두가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아픔

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길은 자비를 베풀고 고통을 나누는 길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같이 나아가는 길이며, 함께 나누는 길이며, 생명이 소중한 정도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 서로가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사는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비와 평화, 평안과 행복의 세상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길은 감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던 길입니다. 누군가 마음을 내어 걷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금세 수많은 손길과 발길로 가득 차는 길입니다. 연등 불빛 밝게 비추는 그 길을 향해 다같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불기2558년 4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